

2018년 10월 19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쏟아진 리스크 요인 여파로 부진 이탈리아, 브렉시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우려 부각

### 미 증시 하락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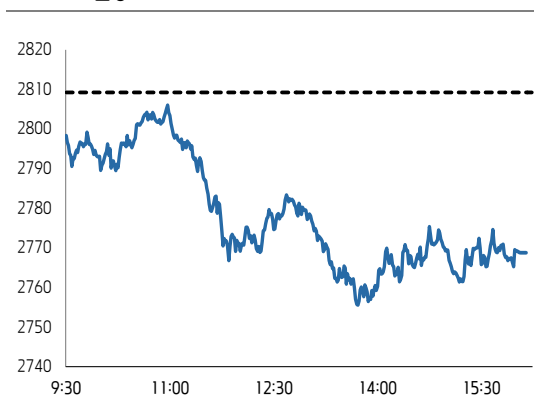
미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 기업실적 둔화 가능성과 더불어 이탈리아, 브렉시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경기 둔화 등 리스크 요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하락. 특히 대형 기술주를 비롯해 바이오 업종 등이 하락을 주도해 나스닥은 2%넘게 하락(다우 -1.27%, 나스닥 -2.06%, S&P500 -1.44%, 러셀 2000 -1.82%)

최근 논란이 일고 있던 리스크 요인들이 한꺼번에 부각되며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났다. 먼저 전일 FOMC 의사록을 통해 연준은 중립금리 이상의 금리인상을 시사했음. 이 여파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2% 넘게 상승했으며 아시아 시장의 위축을 불러왔음. 반면, 오늘은 웰스 연준 부의장이 “금리인상 종착지가 더 높아진 것은 아니며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선호” 한다고 언급.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금리인상 횡수 증가 문제를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 이 발언 등에 힘입어 미 국채금리는 하락했으나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제한.

최근 이탈리아의 2019년 예산안에 대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음. EU에서는 이탈리아 예산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 반면, 이탈리아 정부는 예산안 수정은 없다고 발표. 이러한 마찰이 이어지며 이탈리아 주가는 하락하고 국채금리는 급등하는 등 변화를 보여왔음. 이런 가운데 오늘은 EU 재정국장(모스코비시)이 “이탈리아 예산은 EU 규칙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이탈” 이라고 주장. 특히 이탈리아 정부 지출(2.7%)이 규정 허용 최대치인 2.6%를 상회하는 등 일부 규정을 위반.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세. 한편, 드라기 ECB 총재 또한 “EU 예산 규정 위반에 대해 채권시장은 잘 이해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자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급등

더불어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중국이 무역관련 협상에서 비협조적” 이라고 언급하며 여전히 분쟁 우려감이 높아진 점. 사우디에서 열리는 ‘미래투자 이니셔티브’에 미국이 불참하기로 하며 사우디 언론인 실종사건이 확대된 점. 영국-EU 간 브렉시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부담

S&P500 일중 차트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48.31	-0.89	홍콩항셱	25,454.55	-0.03
KOSDAQ	731.34	-1.06	영국	7,026.99	-0.39
DOW	25,379.45	-1.27	독일	11,589.21	-1.07
NASDAQ	7,485.14	-2.06	프랑스	5,116.79	-0.55
S&P 500	2,768.78	-1.44	스페인	8,889.60	-1.20
상하이종합	2,486.42	-2.94	그리스	631.88	-0.82
일본	22,658.16	-0.80	이탈리아	19,087.53	-1.8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대형 기술주 부진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마존(-3.33%), 알파벳(-2.63%), MS(-2.00%), 인텔(-2.00%) 등 대형 기술주는 하락 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일부 투자은행들이 대 중국 관세 및 달러 강세 등의 여파로 실적이 예상을 하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점이 부담이 되었다. 한편 애플(-2.34%)은 전일 ASML, TSMC 실적 발표를 통해 고가형 스마트폰 판매가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으나 하락했다. 한편, 10월 30일에는 새로운 iPads와 Mac을 발표하는 등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매물이 출회되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었다.

JP모건(-1.58%), 웰스파고(-2.50%), BOA(-2.25%) 등 금융주는 퀘스 연준 부의장이 종립금리 이상의 금리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자 국채금리가 하락했으며 이 여파로 부진했다. 한편, 골드만 삭스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 투자의견을 변경했는데 아나로그디바이스(-2.44%) 등은 하향 조정 했으며, TI(-1.97%) 등은 상향 조정 했으나 대부분 하락하며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았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60%	대형 가치주 ETF	-0.86%
에너지섹터 ETF	-3.18%	중형 가치주 ETF	-1.11%
소매업체 ETF	-1.78%	소형 가치주 ETF	-1.79%
금융섹터 ETF	-1.63%	배당주 ETF	-0.33%
기술섹터 ETF	-1.96%	변동성 ETF	+6.71%
소셜 미디어업체 ETF	-2.95%	대형 성장주 ETF	-1.92%
인터넷업체 ETF	-2.69%	중형 성장주 ETF	-1.67%
리츠업체 ETF	+0.06%	소형 성장주 ETF	-1.90%
주택건설업체 ETF	-2.15%	신흥국 고배당 ETF	-2.45%
바이오섹터 ETF	-1.47%	신흥국 저변동성 ETF	-2.13%
헬스케어 ETF	-1.13%	하이일드 ETF	-0.45%
곡물 ETF	-1.13%	물가연동채 ETF	-0.06%
반도체 ETF	-2.60%	Long/short ETF	+1.7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34.41	-0.48%	-0.83%	-3.25%
소재	335.23	-1.14%	-0.25%	-12.02%
산업재	617.66	-1.79%	-0.07%	-7.60%
경기소비재	856.17	-2.11%	+1.04%	-8.43%
필수소비재	549.54	-0.23%	+2.45%	-2.84%
헬스케어	1,069.00	-1.14%	+2.92%	-1.91%
금융	440.99	-1.55%	+0.52%	-7.99%
IT	1,228.50	-2.02%	+1.94%	-6.63%
커뮤니케이션	152.94	-1.84%	+2.63%	-2.78%
유틸리티	272.70	+0.08%	+1.52%	+1.70%
부동산	194.83	+0.01%	+2.13%	-5.2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중국 경제지표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2.65% MSCI 신흥 지수는 2.60%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이 순매수(+66 계약) 했으나 2.35pt 하락한 275.9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8.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증시는 리스크 요인들이 쏟아진 여파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했다. 최근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이탈리아 문제가 드라기 ECB 총재와 EU 재정국장의 발언 여파로 재부각되었으며,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중국과의 무역분쟁 우려를 언급한 점도 부담이었다. 이 여파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을 불러왔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조정을 보여왔던 점을 감안하면 하락폭이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된다. 더불어 퀘스 연준 부의장이 “금리인상 종착지가 더 높아진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금리인상 횡수 증가 우려를 완화 시킨 점도 긍정적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시각 오전 11 시에 중국의 GDP 성장률을 비롯해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지표가 발표된다. 시장 참여자들은 전월 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중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예상을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일 중국 증시 급락 뒤에는 일부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 사업 중단과 심사 강화가 발표 되는 등 수급적인 요인이 컸지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도 영향이 컸다. 이를 감안 오늘 중국 경제지표 결과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이 지표 결과 발표 후 중국 주식시장의 변화가 한국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제조업지표 예상치 상회

10 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22.9) 보다 소폭 둔화된 22.2 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는 예상치(19.7)을 상회하는 결과였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고용지수(17.6→ 19.5)는 개선되었으나 경기동향(36.3→33.8), 신규주문(21.4→19.3) 등은 부진했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1.5 만건) 보다 감소한 21 만 건을 기록했다. 여전히 고용 개선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미국 국채금리 하락 전환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및 위험자산 회피 심리 여파로 하락 했다. 비록 사우디아라비아의 회의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등 여전히 우려감이 높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사우디는 중요한 동맹국이다” 라고 주장하는 등 관련 우려감 완화시킨 점도 하락 요인이다. 이와 함께 WSJ 가 OPEC 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 했는데 “미국의 산유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재고 증가에 따른 국제유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문건을 토대로 OPEC 의 국제유가 하락 전망 보도도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파운드화 및 유로화 약세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이번 회담에서 타결이 되지 않을 것이며 11 월 긴급 EU 정상회담을 통해 일부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약세 요인이었다. 유로화는 드라기 ECB 총재와 EU 재정국장이 이탈리아 예산안에 대해 비판을 가하자 관련 이슈가 부각되며 달러 대비 약세 요인이었다. 반면, 엔화는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신흥국 환율은 대부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연준의 매파적인 성명서로 인하 상승하기도 했으나,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과 랜들 켈스 연준부 의장의 발언으로 하락 전환 했다. 켈스 연준 부의장은 “금리인상 종착지가 더 높아진 것은 아니며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선호” 한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금리인상 횡수 증가 가능성을 완화 시켰다.

금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95%, 철근도 0.87%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8.65	-1.58	-3.27	Dollar Index	95.936	+0.38	+0.97
브렌트유	79.29	-0.95	-1.21	EUR/USD	1.1457	-0.38	-1.17
금	1,230.10	+0.22	+0.20	USD/JPY	112.19	-0.41	+0.03
은	14.604	-0.40	-0.01	GBP/USD	1.3021	-0.72	-1.58
알루미늄	2,013.00	-0.45	-0.35	USD/CHF	0.9958	+0.05	+0.65
전기동	6,157.00	-1.00	-1.36	AUD/USD	0.7103	-0.08	-0.29
아연	2,683.50	+0.69	+2.97	USD/CAD	1.3075	+0.42	+0.33
옥수수	370.75	-0.94	+0.41	USD/BRL	3.72	+0.89	-0.96
밀	513.00	-0.87	+0.98	USD/CNH	6.9433	+0.19	+0.94
대두	863.50	-2.51	+0.61	USD/KRW	1135.20	+0.77	-0.80
커피	122.05	-0.41	+8.10	USD/KRW NDF1M	1138.00	+0.94	+0.20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173	-3.21	+2.31	스페인	1.725	+7.80	+8.40
한국	2.297	-3.30	-6.80	포르투갈	2.025	+8.30	+1.10
일본	0.152	+0.40	+0.60	그리스	4.416	+11.50	-5.60
독일	0.416	-4.50	-10.20	이탈리아	3.683	+13.80	+12.20